**신한은행 면접 예상 질문 준비**

Q. 1분 자기소개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빅데이터 지원자 백승찬입니다. 면접관님, 저는 저를 물건에 빗대어서 3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쉽고 빠르게 흡수하는 것처럼, 학부생 시절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IoT, VR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빠르고 방대하게 쏟아지는 IT 기술 속에서 이러한 습득 능력과 배우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움의 자세가 준비된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빅데이터 지원자 백승찬입니다. 면접관님, 저는 친구들로부터 ‘악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악바리 같은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12번의 입찰 제안에 도전하였고 11번 연속 탈락한 끝에 1번의 입찰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맡은 임무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왜 신한은행에 지원하였나요? 신한은행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평소 IT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IT 기술이 선보이는 만큼, 관련 분야 종사자가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고,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엠폴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신한은행이 타행과 큰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 스타트업을 관둔 이유가 무엇인지?

* IT 신기술로 새로운 가치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같이 객관화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 가능성 있는 전략을 제시해보고 싶었고, 제가 목표하는 바에 한단계 더 가까워지고 싶었기에 스타트업을 관두고 신한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스타트업에서 VR에 도전하였다고 알고있다, 그러한 점을 입행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 VR기술로도 충분히 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가상현실을 통해 대면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보다 더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친숙함을 줄 수 있다.

Q.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먼저 저의 장점은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인지치료 개선 VR 콘텐츠 제작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인지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컨택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박사님으로부터 많은 의견 및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인지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을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이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사업 입찰 제안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11번의 입찰 제안에 도전해보았지만 11번 모두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던 제안서들을 면밀하게 복기하여 그 다음 입찰 제안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고 마침내 입찰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집념과 근성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가진 단점은 하고싶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부시절 여러 대외 활동과 전공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동시에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전공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선순위를 전공 수업 프로젝트에 두었고, 본의 아니게 대외활동 프로젝트에 소홀해져 팀원들에게 많이 의지 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는 항상 욕심을 줄이고,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영업점에 배치된 후 변경없이 계속 영업점에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제가 추후 디지털 직무로 변경되지 않고 계속 영업점에 남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영업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모르는 능력을 업무를 통해 발굴했고, 이러한 능력을 인사부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영업점에 남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Q. 마지막 한마디

* 작년 신한은행 신월4동 지점에 방문하여 월급통장을 개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할머님께서 막 은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입구에 있던 CS 매니저가 할머님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택시를 태워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의 옷이 다 젖어가면서까지 친절하게 행동하는 CS 매니저를 통해 신한이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을 직접 느꼈습니다. 입행하게 된다면 제가 보았던 CS 매니저 못지않게 고객에게 따뜻함을 안길 수 있는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Q. 본인만의 금융권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역량을 쌓았습니다. 빅데이터 대외활동에서 데이터 정제, 시각화에 대해 배우고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관련 논문을 통해 원리와 적용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금융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